

# 지역발전 큰 발원... 합창으로 한마음

### 제 3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5월 11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원효대사의 율화정신과 사명대사의 애국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경기북부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불음의 메아리를 전하는 무대를 연다.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와 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김갑)의 공동주최로 5월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봉행되는 '제3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음악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중단을 초월한 경기북부지역 8개시와 2개 군의 불교사암연합회 연합 합창단원과 음악인 1000여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봉행위원장인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각 지역의 문화적인 특색과 예술성을 합창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분자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골고루 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말처럼 이번 음악제에 연주될 레퍼토리는 다양하다. 합창단마다 무대에 오르면 우선 '자비의 나라' '얼마나 다했어 겨울 마음 닳을까' '열불을 하노라면' 등 찬불가를 선사한다. 이어 '그리운 금강산' '어느 소녀의 사

랑이야기' 등 대중가요를 음성공양 해 흥을 돋울 것으로 보인다.

합창단 지휘자들도 이렇듯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질 중견 음악가들이 지휘봉을 잡아 음악의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남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오승희씨, 의정부시 불교합창단의 이진형씨, 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안병길씨 등 불교음악 지휘경력이 15년 이상된 베테랑 지휘자들이다. 김양희씨가 이끄는 어린이불교합창단도 참가해 '풍경화' '부처님 나라로' 등 어린이 찬불가를 선사한다.

### 8개시 2개 군 지역불자 1천여명 참여 불교전통음악 현대음악 장르 다양 대운 스님 양주시 불교합창단 협연도

찬불가수 대운 스님과 양주시 불교합창단의 협연 무대도 눈여겨 볼만하다. 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음성 반주에 맞춰 애절하고 풍부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대운 스님이 '정신은 나를 보고'를 들려준다. 또한 유일하게 외국곡을 연

주하는 남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축제의 꽃과 아가씨스펙인 교향시도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충분한 레퍼토리다.

지휘자 안병길씨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자주 모여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쉽지 않다"며 "경기북부지역의 사암연합회가 혼연일체 돼서 종파와 지역을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북부도민들에게 노래로 선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2005년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제 1회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2006년에는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축이 돼 고양예술극장에서 제 2회 예술제를 봉행한 바 있다. 이 음악예술제는 이렇게 해마다 북부지역 회원사인 시단위 불교연합회가 순번제로 예술제를 주최하고 있다.

한편 '선인들의 참 뜻을 찾아서 내 고향을 밝고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는 주관지역인 남양주시를 비롯해 포천시, 파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불교연합회 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031)558-010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토굴서 칩거하며 완성한 100여점 선보여

### 정현 스님 '날마다좋은날'展

'날마다좋은날 뉘소서' 불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경구다. 이 글이 적힌 문수동자의 그림을 1만 5천여장이 넘도록 보시한 스님이 있다. 바로 前 용주사 주지인 선허가 정현 스님이다. 스님 작품의 주제와 사상은 넓은 의미에서 우주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중생을 위한 날마다 좋은날이 되는 것이다.

스님의 그림은 굳이 찬찬히 뜯어 보지 않아도 단박에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짐을 느낀다. 한국의 빛깔인 현란한 오방색이 색채미학의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색점들은 사람의 단정 빛깔과 오버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정현 스님이 마곡사 내 토굴에서 겨우내 칩거하며 그렸던 100여점을 일반에게 선보인다.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종로 수운회관 3층 다보성 갤러리에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등에 올라 탄 파리 부는 문수동자' '소 영령이 곁에 타고 있는 두 머리를 가진 새' '공명초와 연꽃' '달마도' 등이 벽에 걸린다. (041)841-7840

김주일 기자



### 만해문학 아카데미 열려

만해스님의 문학사상이 작품속에 녹아 있는 우리시대 대표적 문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백담사 만해마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8회에 걸쳐 '문학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제 4회 만해

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4월 14일 소설가 권지에 △5월 12일 소설가 박완서 △6월 9일 시인 유안진 △7월 14일 소설가 오정희 △8월 25일 평론가 김재홍 △9월 8일 시인 황동규 △10월 13일 시인 박남준 △11월 10일 시인 송수권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 찬불가 머리말에 개척자 심경 밝혀

### 1970년대 - 1980년 후반

지난 호에서 우리는 운문 스님과 서창업 선생이 찬불가 집을 편찬하면서 후기와 머리말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외국 곡을 삽입했음을 인정하고 특정 사찰의 찬불가가 삽입되어 책으로써의 가치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점도 고백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궁금하다. 과연 독자 여러분은 불교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든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독자 여러분

반성, '잠된 일꾼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의 검토하여 엄격한 취사선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원, "역시 이 책에도 20여곡의 외국 곡을 실었다" "통불교를 수용하고 선의의 자극을 창출하기 위하여 특정한 노래를 실었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말과 뜻은 있으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현대불교음악 개척자들의 심경이다.

현재 우리의 불교음악의 주소는 어디인가? 앞으로의 지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등의 의문이 화

### "과거 범패라는 좋은 노래가 있었으나 책에는 20여곡 외국 곡을 실었다"

오늘날의 불교음악계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 '교리의 행동실천방향'은 불교음악의 교과서인 찬불가 신도용과 합창용을 신의 의결하여 출판하고 있다. 또 불교합창단은 전국적으로 13개 지회로 구성되어 매년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준 비되어있지 않고 예의 검토되지 못했다"라던 아쉬움은 2002년에 25명의 전문가가 2박3일 동안 외국 곡까지 심사 숙고하여 찬불가를 편찬하여 출판함으로써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 연극집단 반 '나무물고기' 공연

연극집단 '반(反)'의 창단 10주년 기념작인 '나무물고기(木魚)'.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 속에서 도를 닦고 있는 '이다' '바라' '하지' 스님은 20여년 전에 입적한 지산 스님의 뜻을 받들며 열심히 정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연극은 수행생활중에 일어나는 감동과 에피소드가 아름다운 시와 노래, 음악이라는 오브제로 탄탄하게 엮여져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연극 '늪은 부부 이야기'로 주목 받은 배우 김담희씨가 지산 스님의 애인인 소월과 명희의 역할을 3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인2역으로 맡아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시인 류시화 차창룡씨 등의 시가 감미로운 라이브 음악과 함께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다.

'나무물고기'는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우석레퍼토리 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02)762-0810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 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차사돼지들  
선물로 드립니다. 200개 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 사찰에서 산사 음악회, 각종 행사에 초청해주시면 공연상담을 해드립니다.





**네팔(정부지원) 왕실국립무용단 초청공연**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7

부처님 성지 "룸비니 동산" 보존, 복원 및 티베트 불교 난민 돕기 공연

◇ 일시 : 양력 / 2007년 4월 15일 - 6월 30일 (75일간)  
◇ 초청 : 한국 국제문화 교류회, 불교상조 (국민상조)  
◇ 후원 : 네팔정부, 네팔 문화관광청, 네팔 국제문화교류협회  
◇ 네팔 정부지원의 국립무용단 공연상담 (직통 : 남양일/ 국제 문화교류회)  
TEL : 011-1714-8851 / 011-581-8851 FAX : 02-441-8851  
E-mail : chs541013@hanmail.net